

한승택 멀티홈런 치고도...KIA 2연속 루징 시리즈

가농·브룩스 모두 외국인 선수 맞대결서 완패...LG 트윈스에 5-13 대패



외국인 선수 맞대결에서 '호랑이 군단'이 완패했다. KIA가 지난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시즌 3차전에서 5-13으로 졌다.

애런 브룩스가 선발로 출격했던 1차전에 이어 드류 가농이 전면에 나선 3차전까지 내주면서 KIA는 2연속 루징 시리즈로 뒷걸음질 쳤다.

올 시즌 가장 주목받은 외국인 선수 브룩스와 가장 뜨거운 페이스의 로베르토 라모스의 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1차전. 라모스가 파워 싸움에서 승자가 됐다.

2회 첫 만남에서는 브룩스가 땅볼로 라모스를 잡아내며 웃었다. 하지만 0-0으로 맞선 4회 1사 1루에서 이뤄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라모스가 브룩스의 145km 투심을 중앙으로 넘기며 승자가 됐다.

브룩스는 이후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지만 팀이 리드를 뒤집지 못하고 2-6으로 지면서 시즌 2패째를 기록했다.

31일 경기는 KIA 가농과 LG 타이거 윌슨의 마운드 대결이 관전포인트였다.

가농은 앞선 KT전에서 7이닝 3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뒀고, 윌슨 역시 한화를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팀의 위닝시리즈를 놓고 맞붙은 두 사람의 시작

은 좋지 못했다.

가농이 1회부터 선두타자 볼넷과 폭투 등으로 2실점을 했다. 2회에도 선두타자 홍창기에게 우측 2루타로 실점을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윌슨도 2회 1사에서 안타와 폭투 등을 허용한 뒤 한승택에게 좌측 투런포를 맞았다. 최원준의 안타와 박찬호의 우측 2루타까지 나오면서 두 선발 투수는 2회까지 나란히 3실점을 했다.

하지만 윌슨이 컨디션 난조로 10안타를 허용하고도 6회까지 4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준 반면 가농은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나면서 고개를 숙였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선발 역할을 한 윌슨은 경기가 13-5로 끝나면서 승리투수가 됐고, 가농은 시즌 3패째를 기록했다.

KIA는 4회까지 6개의 잔루를 남기는 등 윌슨 초반 공략에 실패한 게 패인이 됐다.

주중 KT 원정에서 1승만 챙긴 KIA는 LG와 대결에서도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타커가 LG와의 주발 3연전에서 단 하나의 안타만 기록하면서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한편, 31일 1회 첫 타석에서 윌슨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린 포수 한승택은 9회말 네 번째 타석에는 김대현을 상대로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지난 2018년 5월 25일 NC 원정 이후 멀티홈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뜨거운 타격에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2회 말 2사 3루에서 8번 타자 한승택이 좌월 투런홈런을 날린 뒤 황윤호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덕아웃 T 특목

윌리엄스 감독 "박찬호 2타점 적시타 치라 했더니 3타점 홈런 쳤다"

▲2타점 하고 오랫동안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한 '한방'이었다. KIA 박찬호는 지난 30일 LG와 홈경기에서 시즌 마수결이 홈런이자, 통산 3호포를 기록했다. 팀이 4-0으로 앞선 5회말 2사 1·2루에서 박찬호는 여건욱의 직구를 받아 좌측 담장을 넘기며 승기를 가져오는 3점포를 장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찬호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2타점 적시타치고 오라고 했는데 홈런을 쳤다"며 웃었다. 박찬호는

"몸쪽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예상이 맞았다. 정확히 맞았다고 했다. 그게 득점권에서 타자로서 역할이다"며 "잘 맞은 것은 아니었는데 탄도 보면서 넘어갔다"고 생각했다"고 첫 홈런을 이야기했다.

▲나지완 판타스틱! = KIA 윌리엄스 감독은 5월을 돌아보면서 '놀라움'과 '꾸준함'을 이야기했다. 5월 5일 늦은 개막 이후 KBO리그에서 첫 한 달을 보낸 윌리엄스 감독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며 5월

을 돌아봤다. "선발투수도 좋고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나지완 판타스틱"이라는 말도 했다. 올 시즌 KIA 타선의 키로 꼽힌 나지완은 지난 29일 KT 원정에서 김성환을 넘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홈런인 208개의 홈런을 장식하는 등 5월 한 달 23경기에서 나와 타율 0.333, 4홈런 17타점의 성적을 냈다. 나지완의 깜짝 활약 등이 있었지만 매일 다른 모습으로 예를 태

운 경기력은 윌리엄스 감독의 고민. 윌리엄스 감독은 "기록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승리 비결은 윤? 지인이 형? = KIA 투수 이민우는 지난 30일 LG전에서 두 경기 연속 7이닝을 소화하면서 2실점(1자책점)의 호투로 시즌 3승을 신고했다. 이민우는 "역대급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윤이 좋았다"며 "생각해 보면 스피드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은 결과로나오는 이유인 것 같다. 변화구 비중을 높이면서 맞춰 잡고 있다. 직구는 보여주기로 던지면서 변화구 완급 조절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이 믿어 주시니까 편하게 던지고 있다"며 "또 (나)지완이 형이 등판 때마다 항상 쳐준다고 이야기하고 진짜로 쳐준다. 그래서 커피 대접했다"고 웃었다. 나지완은 30일 4안타 포함 이민우가 나온 5경기에서 12개의 안타를 수확하며, 타율 0.600을 장식했다. 또 3개의 2루타와 1개의 홈런도 기록하면서 5타점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소영이 지난 31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회 E1 채리티 오픈 FR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KLPGA 통산 5승

E1 채리티 오픈...17언더 271타, 2위 유해란 2타차 제압

이소영(23)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침착한 경기력을 자랑하며 생애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소영은 31일 경기도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파72-641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 3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친 이소영은 2위인 '루키' 유해란(19)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시즌 첫 승, 통산 5승을 올렸다. 우승 상금은 1억6000만원.

특히 1라운드부터 나흘 내내 선두를 유지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2015년 데뷔한 이소영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소영은 1라운드 65타, 2라운드 67타, 3라운드에는 70타를 쳤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인 이소영은 2018년 9월 올포유 챔피언십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이소영이 올포유 챔피언십 우승을 거둔 장소도 이

곳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이었다. 당시 우승으로 이소영은 2018년 다승왕(3승)에 오를 수 있었다.

2016년 7월 조정 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이소영은 "짜수해"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인연도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준우승만 3차례 했다.

1타 차 선두로 출발한 이소영은 라운드 내내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6번 홀까지 파 세이브 행진을 벌인 이소영은 7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아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이소영은 비시즌 기간에 공들여 갖고 닦은 쇼트게임으로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다.

13번 홀(파4)에서는 2타 차로 쫓아오던 유해란이 병크를 그대로 홀로 연결하는 이글을 잡아 순간적으로 이소영과 동타를 이뤘다. 유해란은 3라운드에서도 13번 홀 이글을 잡았다.

그러나 이소영은 흔들리지 않고 13번 홀을 버디로 마무리하며 다시 1타 차 단독 선두로 돌아섰다. 이소영은 쫓기는 처지에서라도 묵시 있게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했다.

이소영은 16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격차를 벌렸다. 같은 조의 유해란은 16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아쉽게 놓쳐 2타 차로 멀어졌다.

17번 홀(파3)에서는 이소영과 유해란 모두 파를 적어냈다. 이소영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파 퍼트를 집어넣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유해란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소이(25)와 임희정(20)이 나란히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최예림(21)은 11언더파 277타로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KLPGA 투어 전관왕에 오른 최혜진(21)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24)은 이날 병크에 연거푸 빠지는 등 고전하다가 4타를 잃고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역시 해외파인 김효주(25)는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33위, 일본을 주 무대로 하는 이보미(31)는 1언더파 287타로 공동 55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강제 휴식에 지친 LPGA 선수들 지역대회에 몰린다

우승상금 1만달러 텍사스 여자오픈

루이스·브리타니 랭 등 대거 출전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근교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텍사스 여자오픈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아니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 동안 LPGA 투어 대회로 열렸지만 이후 미국에서는 드물지 않은 지역 프로 대회로 치러져 왔다. 선수들이 낸 참가비로 대회 경비와 상금을 충당하는 미니투어와 달리 여전한

타일 스폰서도 있는 전통 있는 대회지만 상금 등 대회 규모는 LPGA투어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개 LPGA투어에 뛸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가 총상금 5만달러(약 6200만원)를 놓고 순위를 다툰다. 우승 상금은 1만 달러(약 1240만원)로 LPGA투어 대회의 10%도 안 된다.

그러나 올해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은 LPGA투어 대회를 방불케 한다.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LPGA투어에서 12승을 올린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2016년 US여자오픈 우승자 브리타니 랭(미국), 작년 호주여자오픈 챔피언 셸리 부티에(프랑스), 작년 아메리카 텍사스 슛

아웃에서 우승한 사이언 나이트(미국)가 출전한다.

애초 이 대회 일정은 US여자오픈과 겹쳐 LPGA 투어 선수들 커녕, 아마추어 상위 랭커도 출전할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LPGA투어가 전면 중단되고, US여자오픈은 12월로 연기되면서 이 대회는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루이스를 비롯한 LPGA투어 선수들은 지난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LPGA투어 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하는 강제 휴가가 이어지자 경기력 점검과 실전 감각을 되찾기 위해 대거 출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